



그림 · 문병성

자동차에 관한 두 견해

오늘날 첨단과학기술의 산물 가운데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매우 편리하게 쓰이고 있는 자동차는 크게 두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하나는 '환경오염' 문제다. 그래서 선진국에서는 지구온난화 방지 협약에 따른 환경보호와 환경관련 법규 대응 및 21세기 자동차시장의 선점을 위해, 초저연비·저무공해 자동차 기술을 법국가적 사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최근 미국 다임러크라이슬러가 만든 연료전지 차 '넥타르5'는, 2002년 5월 20일 서부 캘리포니아주 주도인 새크라멘토를 출발, 6월 4일 최종 목적지인 워싱턴에 도착함으로써, (물의 전기분해 과정을 역이용한 연료전지 차로는 사상 첫 미국대륙 횡단에 성공했다. 이로써 무공해차의 상용화시기를 2010년으로 20년쯤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이 차는 메탄올을 연료로 사용했는데, 한번 달으면 4백80km가량 주행하였으며,

최고속도 1백50km까지 가능하다. 다른 하나는 정상적이면 사람을 장애인으로 만들거나 사망케 하는 치명적인 '교통사고'다. 우리나라에서는 한해 평균 약 25만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 35만 명이 부상당하고, 1만 명 정도가 사망한다.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역학에너지 보존법칙(운동에너지+퍼텐셜에너지=일정)'을 이용해 보자. 운전자가 각각 시속 54km, 72km, 108km(각각 초속 15m/s, 20m/s, 30m/s)로 수평으로 주행하다 충돌했을 경우를 수직 운동으로 바꾸어 몇 층 높이에서 추락할 때 땅에 닿기 직전의 속도가 각각 시속 54km, 72km, 108km가 되는지를 살펴보면, 속도에 대한 공포감을 제대로 느낄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높이가 h인 건물의 꼭대기에 질량이 m인 사람이 서 있을 경우 퍼텐셜에너지(=역학 에너지)는 mgh이다. 여기서 g(=9.8m/s²)는 중력가속도이다. 반면 이 사람이 뛰어내려 바닥에

박영재 교수의 첨단 과학과 불교



달기 직전의 속도를 v라고 할 경우, 퍼텐셜에너지는 모두 운동에너지(=역학 에너지)로 판단된다. 필자의 경우 10여 년 전부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거의 차를 집에 두고 출근을 한다. 그전까지는 출근할 때 무조건 자가용차를 타야만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러다 한 학기에 한두 번 저녁 때 술을 한 잔 할 일이 생겨서 버스타 지하철을 몇 번 이용한 뒤로는,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는 데 재미가 들었다. 그러면서 몇 번 이들을 이용하다보니 자가용을 몰

기 때문에 걸음수쪽 좋다. 또한 환경보존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문제는 앞에서 물리학적으론 위험 수치를 충분히 쉽게 제시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마음자세로 속도를 높일 때마다 충분히 앞차와의 안전거리(평균 시속 100km일 때는 앞차와 100m거리 유지)를 늘려가면, 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수행자 자세로 대중교통이용-환경보호 "온몸 차가 되니 빠르고 늦음이 자유자재"

므로 각각 대략 4층, 7층, 15층에서 떨어지는 것과 같은 효과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제 불교적인 측면에서 자동차에 관한 두 문제를 살펴보자. 먼저 환경해자가 상용화는 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상용화되기에 보다 많은 시일이 걸릴 것이다. 따라서 그때까지는 온 국민이 수행자적인 마음자세를 가지고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는 운동을 벌여 환경보존에 기여해야 할 때라

고 출퇴근하는 시간보다 더 빠를 때도 많고, 운전엔 신경을 안 써도 되니, 그동안 수행에 몰두할 시간도 많이 늘어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특히 시간을 맞추어 갈 일이 있는 모임은 지하철을 타면 어김이 없다는 것도 알았다. 물론 한두 정거장 정도는 걸어 다닐 마음의 준비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한두 정거장 걷는 것은 사실 여러분 각자의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 특히 좌선 수행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다리 힘이 필요

하기 때문에 걸음수쪽 좋다. 또한 환경보존을 위해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하여 모은 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도 있는 것이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문제는 앞에서 물리학적으론 위험 수치를 충분히 쉽게 제시했기 때문에, 계율을 지키는 마음자세로 속도를 높일 때마다 충분히 앞차와의 안전거리(평균 시속 100km일 때는 앞차와 100m거리 유지)를 늘려가면, 거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끝으로 '무문관(無門關)' 제 8칙에 차(車)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월암(月庵) 화상이 한 스님에게 "해중(海中) 수레의 시조이 수레(車)를 무수히 많이 만들었는데 양쪽 바퀴를 떼고 축까지 뺐으니 무엇이라고 하는 건?" 하고 물었다. 이 이야기는 수레가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이용되던 시대에 살던 월암 스님이 제자들의 수행을 점검하기 위해 만들었던 화두이다. 따라서 수레를 오늘날의 차로 알고 이 화두를 공부하면 된다. 사실 차에 대한 집착을 끊으려는 마음가짐과 더불어 조금만 정신차리면 값진 선 수행을 할 수 있는데, 차에 관한 모든 것은 이 한 화두에 다 집약될 수 있다. 자! 덩고 교통체증으로 인해 짜증나는 행락철, 월암 스님의 배짱을 일시에 꿰뚫어 다음과 같은 경계를 체득해 보시기 바란다.

온몸이 차가 되니(몸신사차通身是車) 느리고 빠름이 자유자재로 구나완 급자재(緩急自在) 박영재/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ypark@ccs.sogang.ac.kr

이렇게 들었다

생명보다 귀한 것은 없다

미군 장갑차에 짓밟힌 꿈 지난 6월 13일 경기도 양주에서 여중생 2명이 미군 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신효승(14, 조양중 2), 심미선(14, 조양중 2)이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생일잔치에 가다, 미2사단 44공병대 소속 장갑차(운전자 마크 병장)에 압사당해, 채 피우지 못한 꿈들이 갈기 갈기 찢겨진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 미군은, 정상적인 훈련 중에 생긴 일이고, 안전수칙을 지켰다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한 한미 합동조사단을 구성한다고 해놓고도 정작 사고현장에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으며, 화재하던 인터넷 방송 기지를 폭행, 불법 감금하는 사건도 일어났다.

이에 대해 범국민대책위원회는 △부시 미국대통령의 공식 사과 △유족과 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여하는 진상 조사단 구성 △양주 미군훈련장 폐쇄 △유족에게 피해배상 실시 △불평등한 SOFA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 중요한 얘기들이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 14살 꽃다운 여중생의 죽음 그 자체에 대해서다. 그러나 마크 병장 등은 사고 다음날에도 자숙은커녕 아무렇지도 않은 듯 웃고 떠들어, 같이 근무하던 카투사들이 격분, 몸싸움까지 벌였다고 한다.

인간 생명의 존엄성은 그 어느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다. 모든 사람은 나이, 성별, 종교, 빈부, 피부색을 떠나, 생명의 존엄성 앞에서 위없는 존재다.

「자신이 사랑스러운 것을 아는 자는 다른 사람을 해쳐서는 안 된다.」 (상용부경전)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회엄경)

「모든 것은 폭력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한다. 이 이치를 자기 몸에 견주어 남을 죽이거나 죽게 하지 말라.」 (법구경, 129)

영어로 배우는 불교영어

팔상도 Eight Scenes of the Buddha's Life

7. Enlightenment After overcoming temptation, enlightenment is complete. For forty-five years, Sakyarnuni wandered and taught anyone who was interested in his understanding of reality.

유혹을 물리친 후 깨달음이 완성됐다. 석가모니 부처는 45년 동안 유랑하며 자신의 깨달음을 알고자 하는 이들을 가르쳤다.

8. Entering Pannirvana At the age of 80 the Buddha passed away between two sala trees and many disciples and animals gathered to mourn his passing. In elaborate paintings, there is a colorful shower of relics from the burning casket. Around the body are crowds of both heavenly and earthly mourners.

석가모니 부처는 80살이 되자 사라쌍수 아래에서 열반에 들었다. 많은 제자와 동물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석가모니 부처의 죽음을 그린 정교한 그림에서는 다양한 색채의 사리가 쏟아져 나오고, 주위에는 천상과 지상의 애도객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다.



과 말과 행동이 한 점의 남김도 없이 모두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모든 것은 오로지 한결같은 뿐이다. 말이 붙을 수 없는 이 자리에 한 마디 말이 있고, 생각이 붙을 수 없는 이 자리에 한 생각이 있

'임제록' 통한 선 공부 19

지금 여기에 뚜렷한 것

행동하면서도 행동이 없는 이 자리에 늘 머물고 있다. 그러므로 말은 말이 아니고 생각은 생각이 아니다. 이러한 진실을 생각으로는 어떻게 하여도 이해할 수가 없고 말로는 어떻게 하여도 설명할 수가 없다.

말과 행동이 한 점의 남김도 없이 모두 바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질 것을 볼 수 있다. 여기에서 보면 모든 것은 오로지 한결같은 뿐이다. 말이 붙을 수 없는 이 자리에 한 마디 말이 있고, 생각이 붙을 수 없는 이 자리에 한 생각이 있

식의 조작 가운데에서도 결국에는 이것을 부정할 수 없음을 스스로 안다. 사실 부정과 긍정, 수용과 거부는 의식의 조작에 의해서만 생겨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저 분명하고 명백할 뿐 분명하고 판단됨에 따라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바로 지금 눈 앞에서 벌어지는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고 만져지고 생각되고 의식되는 모든 것들이 혼들림 없이 한결같고 부정할 수 없이 명백하지만, 한 생각도 그곳에 개입하고 있지 않아서 조금의 불편이나 갈등이나 의심이 없다. 바로 지금 눈 앞에서 한결같이 명백한데, 다시 무슨 말을 붙이고 무슨 생각을 끌리겠는가? 본래가 그러할 뿐인데, 스스로 왜곡시키지 말아야 할 것이다.

http://www.mindfree.net/ 김태완 · 부산대 강사, 철학 ■ 김태완 박사 언어학 강좌 안내 부산대학교 매주 토요일 오후(2~5시), 수원 경기문화교원대학 1.3주 일요일 오후(1~4시) 문의 011-9520-0054(이정화)

만사가 본래 명백한데 무슨 말을 붙일까

각을 일으키고 말을 붙이고 알음알이로 헤아릴 때가 훨씬 더 힘들고 장애가 많음을 안다. 여기 생각도 말도 붙을 수 없는 자리에 충분히 익숙해지고 이 자리의 힘이 충분히 강해지고 보면, 본래 모든 생각

으며, 보고 듣고 느끼고 의식하는 것이 모두 바로 이 자리에서 한결같은 뿐이다. 이 자리라고 할 그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말하면서도 말이 없는 이 자리를 떠나지 않고, 생각하면서도 생각이 없는 이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말로 설명할 수도 없고 생각으로 이해할 수도 없지만, 이러한 진실은 너무도 뚜렷하고 명백하게 체득되어서 부정하거나 무시하거나 거부할 수가 없다. 의식적으로 부정한다면 그것은 의식의 습관적 조작이겠지만, 그러한 의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총합 박재 종 가시오가피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 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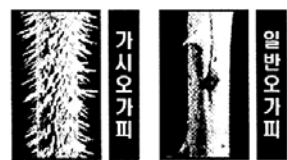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훈구 대표

-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 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주) 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을 최가적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 120가지로 모두 360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식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이뇨작용, 나병, 암 등 분취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생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주문처 서울 (02) 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국립한산물품질관리검정실(분석 51160-150) 심마당 長腦 山蔘